**믿는 자의 모델이 되는 교회(16) -경제 살리는 모델(사60:1-7) 4/24/2016**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제19차 세계 산업인 대회를 참석하고, 괌 선교 사역도 잘 마치고 돌아왔다.

산업하는 성도들은 산업인 대회 메시지를 듣고, 시대적 흐름을 보고, 시대를 살리는 산업인이 나오기를 바란다.

**우리는 진짜 응답을 받아야 하고, 그 응답을 받을 사람이 사실은 우리 밖에 없다(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오직 그 분 외에는 세상의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를 해결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다(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 고통 당하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선교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어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다민족 사역을 하는 교회다. 무너져 가는 이 시대 로마인 미국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겠다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회다.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말고 일심, 전심, 지속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시게 되어 있다.

**오늘 경제 살리는 모델이다.** 단순히 경제 축복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경제 축복을 넘어 경제를 살리는 참 경제인, 참 경제인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1.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1) 본문에 보면 우리가 흑암 덮힌 이 땅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면 모든 것이 돌아온다고 했다.**

 3절에는 열방과 열왕이 돌아오고(이것이 다민족 사역, 선교, 거기에 각 나라의 왕들까지 돌아온다는 의미),

 4절에는 많은 무리가 돌아오고, 아들과 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5절에는 그때에 우리의 얼굴에는 빛이 나고,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했다.

 왜냐?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까지 네게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① 여기서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표현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게로 온다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잃어버리고 뺏긴 것들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다.

**② 도대체 언제 누구에게 뺏긴 것이냐? 단순히 돈 많은 부자들인가? 그냥 세상인가?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이다.**

 흑암에 뺏긴 경제를 찾아내라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가진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정말 이해해야 한다.

**2) 이들은 흑암에 뺏긴 경제를 찾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두가지를 살렸다.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린 것이다.**

**① 6절에 미디안, 에바, 스바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고 했다.**

 모든 민족과 세상을 살린 것이다. 우리 교회와 개인이 이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은 계속 축복해야 한다.

**② 7절에 게달과 느바욧의 양들이 하나님의 전에 바쳐진다고 했다. 모든 민족이 교회를 살릴 것이라는 뜻이다.**

 우리 교회의 모든 언어권의 성도들이 같이 헌신해서 교회를 살리고, 전 세계를 향해 가는 것이다.

 우리 마음 속에, 기도 속에 이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질 때 반드시 이 응답을 받는 경제인이 나올 것이다.

**2.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가?**

 반드시 복음 안에서 세가지를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야 한다.

**1) “반드시 흑암에 뺏긴 경제를 찾아오는 경제인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각인 시키라.**

**① 단순한 경제만이 아니다. 본문 2절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을 것이라고 했다.**

 세상의 모든 분야를 사단에게 뺏겼다(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대). 그래서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이다.

**② 사단이 어떻게 세상을 장악했냐?**

 창3장에 사단이 첫 인생에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했다. 인간의 욕심을 부추겼다(근본 저주)

 지금도 나 중심의 생각, 기준, 욕망이 상처를 만들고, 영적 문제를 만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이다.

 창6장에 사단이 사람들로 “세상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에 빠지게 했다. 세속주의에 빠지게 했다(네피림의 저주) 지금도 너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요일2:15-17)

 창11장에 사단이 하나님 없는 성공에 빠지게 했다.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 양심도, 영혼도 판다(바벨탑의 저주)

**③ 내 힘으로 이 문제 해결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이다.**

 내 의, 내 능력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믿음이다(롬1:16-17). 그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라.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충만 받고, 현장(내 학교, 직장)의 흑암을 꺽고, 제대로 영적 싸움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마12:28).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할 때에 어느날 모든 것이 돌아오는 것이다

**2)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사명을 뿌리가 내리도록 만들라.**

**① 이미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와 있는 것이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다.**

 환경, 현실,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찾고, 그 빛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라.

 이 그리스도의 빛을 찾고, 채워지면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상관없다. 눌릴 일도 없고, 상처 받을 일도 없다.

**②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진짜 세상(내 학교, 내 직장)이 보이기 시작한다.**

 아닌 척 하고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너무 시달리고 살고 있다. 전부 자기 상처를 숨기고 살고 있다.

 조금 가까이 가서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을 현장의 전도자, 현장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이다. 전도 집중 훈련을 받은 이유다.

**3) “열방과 열왕이 돌아올 것이라”, 그들을 살리는 절대 헌신이 삶의 체질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세상을 살릴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를 자기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절대 계획이다.

**①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아픔이 세상을 살릴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기도해보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세상을 살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문제가 올 때 기도를 올바로 해라. 틀린 기도, 해답이 없는 기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기도, 육신적인 기도만 한다.

**② 마침내 내가 하는 공부, 일, 사업, 헌금이 전부 세상을 살리는 결론이 되도록 기도하라.**

 유대인이 세계를 정복한 비밀이다(언약, 공동체 의식, 헌신을 위한 교육 “하누크”)

**③ 이 절대 헌신을 위해 우리는 이유 있는 도전을 하는 것이다.**

 불신자도 감동을 받을 만큼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생명을 걸고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24시, 25시, 재창조)

**결론-**돈만 경제가 아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경제다. 우리가 하는 일을 살려내는 축복 속에 있기를 축원한다.